

전북 탄소산업 관심 '후끈'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서 전시관 운영 탄소산업과 새만금 챔버리 등 집중 홍보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25~27일 전남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국내 최대규모 국민소통 행사로 개최된다.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지역발전 사세를 공유하고자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부 등 14개 관계부처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탄소산업 수도 전북도, 도약을 말하다를 주제로 '탄소융복합산업과 새만금'을 중점 전시하고,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 부상하는 전북의 위상과 실현되고 있는 새만금'을 널리 홍보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전북이 개발한 탄소산업 특성과 기술력을 소개, '전북이 대한민국 탄소산업 선도도시다'에 방점을 찍을 전략이다.

탄소는 철보다 1/4정도 가벼우면서 10배 강한 첨단소재로 제조업, 방

산, 자동차, 선박, 우주항공은 물론, 스포츠·레저까지 활용되고 후방산업과 연관성이 커 미래산업의 핵심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006년 전주시장으로 탄소산업 잠재력을 확산, 탄소소재를 산업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투자집중한다 4년 만에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을 이끌었다.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공장 전주 입주로 최초 탄소섬유 '탄섬(Tansome)' 생산, 탄소 관련기업 137개가 전주에 입주했고, 특히 지난달 효성의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8.20)에 참석차 전북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선두주자이자 메카로 급부상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그동안의 새만금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

2023세계챔버리대회 개최, 국제공향·신항만 SOC구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조성, 불관리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그동안 미래 발전구상에만 머물렀던 새만금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개막식에는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하여 시도·기초 지자체, 관계부처장관과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산업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지역혁신가 인증사 수여가 이루어진다. 전시박람회는 시도 전시관, 혁신관 등 전시관 운영과 도내 6개 지역특산물 판매업체가 참여한 지역마켓도 운영 중이다.

박람회에 참석한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2019 박람회는 그동안 우리가 말없이 감내한 고통과 노력으로 국내 탄소산업 우위를 선점하고, 새만금을 현재 모습으로 이끌었던 전라북도의 저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시군 긴급방역대책회의 송하진 도지사가 25일 도청 7층 재난상황실에서 유관부서 실국장 및 14개 시장·군수와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과 관련하여 차단방역에 집중 대응해 줄것을 당부하고, 방역상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숨 쉬기 좋은 전북, 청년이 활기찬 청년전북도,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

전북도는 지난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공모제안심사위원회 도민테마제안 본심사를 진행하고 수상제안 8건을 최종 선정했다.

본심사에서는 '숨 쉬기 좋은 전북 만들기', '청년이 활기찬 청년전북도 만들기'를 주제로 제안공모를 실시해 접수된 총 152건의 제안에 대해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선을 통과한 제안 중 최종 우수제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본심사에 앞서, 제안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사이트를 활용하여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심사점수에 반영(10%)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제안공모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제출했던 제안 중 중복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

아 이번 공모제안심사위원회 본심사에서는 제안자가 직접 위원회에서 제안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모제안 심사위원회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의 심사기준으로 은상 2건, 동상 3건의 수상제안과 장려 3건 등 총 8건이 우수제안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상은 적격자가 없어 올해에는 선정되지 않았다.

은상 수상자 2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명은 상장과 상금 각 50만원 그리고 장려상 3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은상에는 주로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미세먼지 제거 회진팬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김건부씨가 제안한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측정하여 미세

먼지 제거 차량을 시내도로에 운행하여 미세먼지 제거와 전북도 곳곳에 넷지(Nudge)를 활용해서 전북의 예향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에 필요한 예술인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종근씨의 '넷지(Nudge)로 예향전북 이미지 제고, 지역 특성 살린 일자리창출' 제안이 각각 차지했다.

동상에는 류재필씨의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여행 플랫폼'과 김요한씨의 '대규모축사주변에 소나무 군락형성', 김지연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가차 인프라 방안'이 선정되었고 장려상에는 장지완씨의 '청년실내 멘토' 등 3건이 선정됐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비전문기인 도민이 작성해 곧바로 정책화하기에는 미흡한 내용이 다소 존재하므로, 향후 도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취지에서 실무부서의 검토 및 보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의 완성도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회의 등 사업 구체화 과정을 거쳐 도정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도약 열어가는 '도민 정책참여단' 본격 가동

전북도가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 발굴과 수립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출범식과 제1차 원탁회의를 열고 전북 인구정책 브랜드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민 정책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를 희망한 140명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전북 소통대로' 플랫폼과 원탁회의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해커톤' 방식으로 전북의 인구정책에 대해 정책참여단의 아이디어 제안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열린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인구정책 브랜드사업은 도 실국과 시군,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했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해커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모여 제한된 시간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논의방식이다. 도민 정책참여단은 앞으로

전북 대도약의 정책 방향 수립과 과제발굴 관련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원탁회의, 보고회 등에 직접 참여해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새롭게 구축된 전라북도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도민들의 제안에 댓글 게시, 공감표시 등을 통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북도는 도민 정책참여단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북 대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가축분뇨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선제적 대응

전북도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미부속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

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퇴비 부속도 의무화한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제도로 축사 1500㎡이상은 부속후기 또는 완료, 1500㎡미만은 부속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1번,

신고규모는 12개월에 1번 퇴비 부속도 검사 후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상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간 전북도는 퇴비 부속도 검사의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추진하고 도, 시군, 생산자 단체 등이 협업체로 퇴비 부속 정제화 및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축산환경개선의 날 퇴비 부속활동 병행 캠페인 등의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챔버리, 온 국민 축제 만들기 '첫발'

내달 5일 에버랜드서 챔버리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전북도가 오는 10월 5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챔버리(이하 '2023 새만금챔버리')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2019 챔버리 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019 북미세계챔버리에서 대회를 이양받으면서 세계챔버리 차기개최국의 터울림 행사로 기획됐다.

지난해 8월 전북지역에서 개최된 '챔버리 유치 1주년 기념행사'에 이

어 열리는 이번 챔버리 코리아 페스티벌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메가이벤트로서 2023 새만금챔버리의 국가행사 이미지 제고와 챔버리 붐 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카우트 대원 100명과 전북도 챔버리 서포터즈 100명이 함께하는 '2023 새만금챔버리 성공기원 홍보퍼레이드', 2023 새만금 챔버리 개최를 축하하는 팝콘서트(K-POP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 내 홍보

부스를 통한 환경캠페인과 에버랜드 자체 이벤트인 푸드 페스티벌(Red&Grill)까지 결합시켜 에버랜드를 찾는 3만여 입장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전망이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에버랜드 입장료 제외)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챔버리는 법정부적 지원 사업이다"라며, "이번 챔버리 코리아 페스티벌을 통해 새만금챔버리를 알려 전국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챔버리 코리아 페스티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스카우트연맹 홈페이지(www.scou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당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장문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강사양성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강사양성으로 제2의 직업의 길이 있습니다.
- ⑤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P: 010-2078-481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